



글로벌 투자전략-선진국
Analyst 황수욱
02. 6454-4896
soowook.hwang@meritz.co.kr



미국 상/하원 감세안 통과와 재정위기 우려

TCJA 감세안 연장 및 5조달러 규모의 부채한도 상한 내용을 담은 예산안이 4월 5일 상원 통과 이후 4월 10일 하원 통과, 상/하원 동시 예산 결의안이 됨. 주요 내용으로는 TCJA 연장에 3.8조,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5조 달러의 적자, 다른 부처들의 5,210억달러의 추가 적자 용인(주로 국방 및 이민 관련 지출증가에서 비롯) 내용을 포함, 2034년까지 5.8조달러의 추가 재정적자 용인

이하는 해당 법안의 효과를 CRFB(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연방예산위원회; 미국 정부 예산과 재정에 대한 비영리 연구기관, 당파성이 없는 초당파적 성격을 띤 기관)이 분석한 내용

이번에 최종 통과한 결의안은 이자 비용(CRFB 1.1조달러 추정)을 포함하면 2034년 회계연도까지 최대 6.9조 달러의 추가 부채 부담을 유발. 그 결과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는 2025년말 100% 수준에서 2034년 134%로 늘어나, 감세안 통과 전 현행법 하에서 예상되던 117%보다 훨씬 더 커짐. 부채가 현행법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됨

2055 회계연도까지 이번 예산 결의안이 45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채를 허용해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1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 이 추정은 국방 및 이민 관련 지출 증가, TCJA 연장 이외 신규 감세가 영구화되지 않고 일시 적용된다고 가정한 결과. 2034년 이후까지 추가 감세와 국방, 이민 지출 증가분이 영구적으로 연장된다면, 2055년까지 최대 60조 달러까지 부채가 증가할 수 있으며,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230%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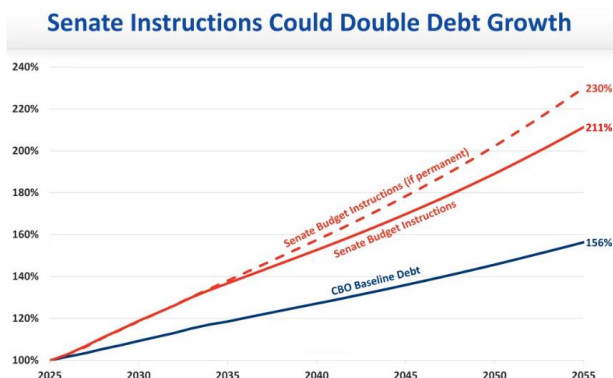
높은 수준의 부채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이자 지급 부담을 키우며, 일반 국민의 이자율 부담을 키우고 국가 안보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부채와 이자가 서로를 키우는 부채-이자 스파이럴(debt-interest spiral)이 발생해 재정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CRFB의 평가

표1 4월 상/하원을 통과한 안건과(좌) vs 2월에 통과했던 기존 하원안(우)의 TCJA 연장 예산안 비교

상원 소관 위원회	조정 지침 (십억달러)	하원 소관 위원회	조정 지침 (십억달러)
"현 정책(current policy)" 기반 TCJA 연장 적자	최대 3,800	세입위원회 (Ways and Means)	4,500
재정위원회 (3.8조 달러 "현 정책" 초과분)	1,500	사법위원회 (Judiciary)	110
국토안보·정부위원회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175	군사위원회 (Armed Services)	100
법사위원회 (Judiciary)	175	국토안보위원회 (Homeland Security)	90
군사위원회 (Armed Services)	150	추가 적자 증가 소계	4,800
상무·과학·교통위원회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20	에너지·상무위원회 (Energy and Commerce)	-880
환경·공공사업위원회 (Environment and Public Works)	1	교육·노동위원회 (Education and Workforce)	-330
추가 적자 증가 소계	2,021	농업위원회 (Agriculture)	-230
농업·영양·산림위원회 (Agriculture, Nutrition, and Forestry)	-1	감독·정부개혁위원회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50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1	교통·인프라위원회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10
은행·주택·도시위원회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1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천연자원위원회(Natural Resources)	-2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s)	-1	미지정 (Unspecified)	-498
적자 삭감 소계 (Deficit Reductions)	-4	적자 삭감 소계 (Deficit Reductions)	-2,000
허용되는 순 적자 증가 (Net Allowable Deficit Increase)	최대 5,800	허용되는 순 적자 증가 (Net Allowable Deficit Increase)	2,800
이자 비용 (Interest)	최대 1,100	이자 비용 (Interest)	약 600
잠재적 부채 영향 총합 (Total Potential Debt Impact)	최대 6,900	잠재적 부채 영향 총합 (Total Potential Debt Impact)	약 3,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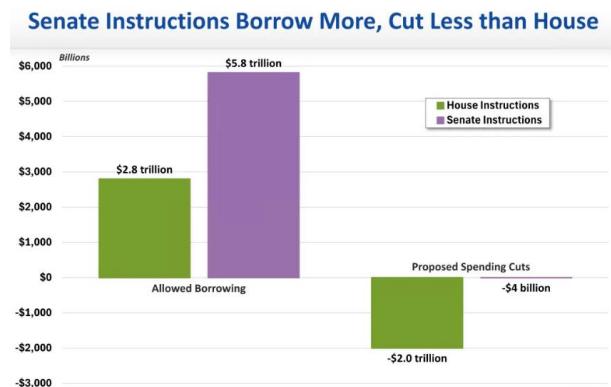
자료: Senate/House Budget Committee, CRFB 추정,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감세안으로 2055년 GDP 대비 정부부채 최대 230%



자료: CFRB

그림2 이번 통과안은 기존 하원안 약 3조 달러 추가 용인



자료: CFRB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